

지역 소식통

정읍시, 5월 2~8일 섶고을 정다운상권 '동행축제' 개최

정읍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 2일부터 정다운상권(섶고을시장, 중앙로, 우암로, 새암로) '2024 동행축제'를 개최한다.

동행축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대국민 소비촉진 캠페인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 달여간 전국 곳곳에서 지역 행사와 연계해 개최된다.

시는 정부의 동행축제 행사에 발맞춰 2일부터 8일까지 정다운상권 일대에서 상권 방문객들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며, 정다운상권 브랜드 오색보쌈 캐리커를 활용한 정다운포토존도 운영한다.

행사기간 동안 상권 내 1만인 이상 구매고객은 응모를 통해 캐네이션 바구니 및 레터링 케이크 만들기, 경품 이벤트 참여 기회가 제공되며 정다운상권 SNS 채널 구독 시 친화형 장바구니와 즉석 팝콘을 선물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탐 가정의학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공모 선정

정읍시는 지역 내 병의원과 손잡고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에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탐 가정의학과'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12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 직접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까지 확대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까지도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희망지는 탐 가정의학과(063-532-2119)와 상담 후 재택의료팀의 방문 및 진료 서비스 등 맞춤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섶고을시장 국산수산물 구매 고객 대상 온누리상품권 환급

정읍시는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섶고을시장에서 국산수산물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국비 6,000만원을 지원받아 섶고을시장 상인회(회장 이흥구)가 진행하는 행사다.

환급 절차는 △행사 참여 점포(30개)에서 국산 수산물 구입 △판매자 간편환급시스템에 구매자의 휴대폰 번호, 구매 금액 등 판매 정보 입력 △구매자 당일 결제 영수증·신분증 지참 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환급 부스 방문 순으로 진행된다

상품권 환급은 구매 당시까진 가능하며, 카드 결제인 경우에 카드 매출 영수증, 현금 결제인 경우에 현금 소득공제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환급 금액은 당일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군민들의 실질적 소득향상 총력”

심덕섭 고창군수, 삼성전자 분양계약 등 주요성과·향후 군정계획 설명

심덕섭 고창군수가 “군민들의 실질적 소득향상과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심덕섭 군수는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올해 주요 성과와 향후 군정계획을 밝혔다. 심 군수는 5대 전략사업(삼성전자 등 기업입주,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드론통합지원센터 건립, 용평리조트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 농촌협약·농촌관광 스타마을)의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그동안의 MOU를 넘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단계에 진입했다. 터미널도시재생혁신지구 최중사업부지를 확정하고, 기존 터미널 상가들과 보상협의를 마무리했다. 이외에도 고창종합테마파크 사업이 정부의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에 포함되며 사업에 탄력이 기대되는 등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사업들이 순항 중이다.

심 군수는 “그동안 삼성전자와의 MOU를 넘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봐도 될 것 같다”며 “내년초 기반 공사에 들어가 2027년 최종 준공을 목표로, 기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심덕섭 군수는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올해 주요 성과와 향후 군정계획을 밝혔다.

특히 이날 심 군수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 등 실질적 소득향상에 주력할 것을 밝혔다.

오는 2일에는 농업현장에 빠른 인력 투입이 기대되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이 예정돼 있고, 농어촌 공간을 구조적으로 바꾸는 437억원 상당의 농

촌협약도 본격화 된다. 5월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고창사랑상품권 착한가격업소 이용시 5% 추가지원 등도 시행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생안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아이들에게 색다른 즐거움 선사... 부안 어린이날 큰잔치

5일 마창공원서... 전통놀이 등 5대 마당 운영

제102회 부안 어린이날 큰잔치가 5일 오전 9시 30분 마창공원에서 시작됐다. 시작으로 전통놀이마당, 다양한 체험마당, 공연마당, 먹거리마당, 나눔마당 등 5대 마당 등 운영으로 어린이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부안군이 주최하고 원불교 삼동청소년회 부안지회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또한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푸짐한 5



는 제작체험,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경찰 직업체험과 공연마당으로 버블 공연, 미술공연, 타우공연 등을 운영한다.

부안교육지원청은 부안군적십자회 봉사로 짜장면 1,000그릇을 무료로 제공하며 방문하는 어린이 500명에게 기념품을 제공한다는 것.

군 관계자는 “행사에 안전관리요원 배치도를 작성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민방의 준비를 마치고, 부안의 꿈나무인 어린이들과 가족들의 많은 방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웃고, 놀고, 즐기자’ ... 정읍시 어린이날 기념행사

5일 정읍제일고 운동장서

정읍시가 제102회 어린이날(5월 5일)을 맞아 정읍제일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웃자GO! 놀자GO! 즐기자GO!' 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가족, 친구와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행사장 곳곳에 에어놀이터, 에

어스포츠클ubs 등 신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를 마련했고 드론, 보드게임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마당, 민속놀이 체험 등이 준비됐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날 행사에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해 웃고, 즐기며 미래를 꿈꾸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며 “무엇보다 안전관리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세심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2024 전북자치도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 5개 분야 수상

부안군 농기센터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주최하는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에서 정보화 우수사례, 농가·농산물 홍보 UCC, 내농산물 라이브커머스, 블로그 포스팅 SNS정보화활동 부문 등 5개 분야 모두에서 수상을 휩쓸었다.

이번 스마트 경영 혁신대회에서는

스마트농업 실현과 농업인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 정보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정보화 우수사례발표 최우수상에 백련농장 김성숙 대표(하서면), 블로그 포스팅 부문 최우수상에 수피우다 농장 최이연 대표(보안면) 라이브커머스 2인1조 부문 최우수상에 유)담하 심경임 대표(동진면), 명당연향 황향순 대표(부안읍), 농가·농산물 홍보 개인 UCC 동영상 경진 분야 우수상에 백룡

농장 최유리 대표(백산면), SNS정보화 활동부문 정려상(명당연향 황향순, 태천블루 민복덕 대표)까지 모두 휩쓸었으며, 부안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부안군 정보화 연구회원들은 SNS를 활용한 지역 농산물 직거래 판매를 통해 정보화 농업인으로서 전자상거래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했으며, 지역 홍보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았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만들기 '주력'

정읍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읍을 만들기 위해 임신 희망부부의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시는 임신 희망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날 30일 밝혔다.

성에게는 정액검사(정자 정밀 형태 검사) 비용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거주 지역에 관계 없이 전국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 지역 내 참여 의료기관은 정읍아산병원, 정읍한국병원, 미래산부인과의원, 현대산부인과의원(개소 모 두 여성 검사만 가능)이며, 참여 의료기관 전체 명단은 'e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검사 전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e보건소'를 통해 사전 신청 가능하지만, e보건소는 상반기 개통 예정으로 개통 전까지는 '문서식'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검사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해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의료기관에 검사비용을 선 납부하고 3개월 이내 보건소에 청구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가예산 발굴사업 집중점검

심덕섭 고창군수 “기재부, 국회단계까지 국가예산 확보 행정력 집중”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역발전을 이끌 어갈 새로운 미래먹거리 사업을 끊임 없이 보완하고 구체화 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심덕섭 고창군수 주재로 주요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해 '고창군 미래전략사업 발굴사업 점검회'와 '국가예산 발굴사업 점검회'를 잇따라 열어 2025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미래전략사업 발굴 사업'은 정부의 국정과제 및 성장장 전략과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 등과 연계한 고창형 특화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최종보고에는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 △블루푸드 산업지원센터 건립 △국립 세계기석문화유산원 유치 △반

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드론학과 유치 등 총 1조원 규모의 사업들이 발굴됐다. '국가예산 발굴사업 점검회'에선 미래전략사업 영역에서 발굴된 36개의 사업들과 지난 3월 국가예산 아이디어 공무원 경진대회에서 발굴된 35개의 사업들을 논의했다.

꼭 필요한 사업의 선별과 우선순위 설정, 군민의 실질적인 소득향상과 생활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 점검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국(도)비 확보가 필수적이다”며 “발굴된 사업들이 국가예산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방문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부처단계부터 기재부, 국회단계까지 국가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1일 오후 고창군 해리면 동호항에서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식이 열린 가운데 심덕섭 군수가 축사를 하고 있다.

고창 동호항 어촌뉴딜300사업 준공

어민 소득 증대 등 기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동호항 어촌뉴딜300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관광활성화와 어민 소득 증대 등이 기대되고 있다.

1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해리면 동호항에서 심덕섭 고창군수와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호항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식이 열렸다.

'동호항 어촌뉴딜300사업'은 2019년 어촌뉴딜사업 추진 첫해에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12억원이 투입돼 지난해 말 최종 준공됐다.

동호해수욕장 노을림터와 경관조명, 해안 들레길, 전망대 조성, 동굴박물관 등의 시설물 등 관광객들이 즐길 거리

가 마련됐다. 군은 동호항의 어항 기반 시설 현대화와 최신식 관광기반시설로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활용사업과 어촌 지역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어촌체험센터와 마을특화사업장, 어구보관창고, 어촌복합센터 등 어민소득증대와 일자리창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설도 조성돼 향후 어촌마을 재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동호항을 거점으로 향후 노을대교와 고창종합테마파크, 명사십리 해양관광레저파크까지 연결되며 대한민국 해양관광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살맛나는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솔티생태관광방문자센터에 운영시스템 구축

정읍시, 방문객 편의성 ↑

정읍시는 솔티생태관광방문자센터에 운영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지난날 30일 밝혔다.

운영시스템에는 안내·홍보용 키오스크 2대, 게임·교육용 키오스크 3대, 홍보용 디스플레이가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6월 개관한 '솔티생태관광방문자센터' 방문객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내·홍보용 키오스크에는 국가생태관광지역인

'월영습지와 솔티숲'과 주변 관광지, 행사 안내 등의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AI 음성안내와 외국인들을 위한 4개국어(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번역도 제공하고 있어 더욱 폭넓은 접근성을 자랑한다.

게임·교육용 키오스크는 국가생태관광지역 '월영습지와 솔티숲'에서 실시하는 멸종위기·보호종 생물들을 활용한 3가지 게임과 정보를 제공해 어린이 방문객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마약성·관상용 양귀비 구별 포스터 제작 배포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양귀비 개화 시기인 5~6월을 맞아 마약성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사진을 활용한 포스터를 제작해 관내 50여 경로당에 배포했다.

또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마약성 양귀비를 범죄인 줄 모르고 예뻐서 민간요법 치료제로 텃밭에서 기르지 않도록 읍·면 이장회의 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마약성 양귀비는 단 1주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입건될 뿐만 아니라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텃밭이나 길가에서 마약성 양귀비를 발견하면 바로 112로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마약류 익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타인에 의한 마약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마약류 노출 피해의 조기 차단을 목적으로 실시하며 보건소를 방문하면 누구나 간이검사가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